

한·중 영화제 수상 소감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 - 감사 행위와 제도성을 중심으로* -

박 찬 욱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영화제 시상식에서 남녀주연배우가 행한 수상소감을 감사행위와 제도성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국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데 있다. 수상 소감에서의 감사 행위는 이익의 내용, 행위의 의도 및 제도성, 청자의 불확정성 등과 참여자 간 관계의 다층성에 따라 일반 대화 속 감사 행위와 대별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한·중 남녀주연배우들의 소감을 행위 구조와 감사 대상의 언급 순서란 측면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소감은 행위 구조면에서 대체로 일치하나 감사 행위에 전후하는 부연 행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감사 대상의 언급순서로 미루어볼 때, 한국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연기자로, 시상식을 칭찬 공유의 장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띠지만 중국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피평가자로, 시상식을 평가 받는 장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갖았다.

주제어 : 수상 소감, 화용론, 감사 행위, 제도성, 담화

* 본고는 2018년 7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2018年中國語言文學研究暨漢語教學國際研討會에서 “韓中電影演員在頒獎儀式中的感言比較”란 제하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들어가며

본고는 한국과 중국의 영화제 시상식에서 남녀주연배우가 행한 수상소감을 감사 행위와 제도성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양국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우 개인적 측면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은 노력한 결과 얻게 된 성취물로 간주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그것의 수상은 배우의 뛰어남에 대한 관객과 비평가, 시청자들의 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공적(公的)인 칭찬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고는 제도 상황 속에서 제공된 칭찬과 그에 대한 수상자의 감사 행위가 일상의 그것과 다를 것이라는 데서 출발하였다. 일상 대화에서 칭찬과 감사 행위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접수(또는 수용) 행위와 그것을 물릴 것인가 하는 부정(또는 거절)으로 나뉠 수 있다.¹⁾

그런데 시상식이란 제도적 상황에서는 대응 상의 한쪽 선택향이 의례적으로 소거된다. 즉, 시상 대상으로 지명된 배우는 수상이라는 접수만이 가능하다. 시상식에 참석한다는 것, 그리고 지명되어 시상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칭찬에 대한 접수, 그것도 적극적인 접수를 가리킨다.

-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 이 상은, 뭐 제가 받아야 될 상이 아닌 것 같아요.……(K1.06.K)
- (2) (邊笑邊哭)e::, **非常, 非常, 謝謝** 金馬獎的評審。因為, 在這個: 學習的路上, 能夠在:, 現在拿到這個獎。……(C6.12.G)

1) 칭찬과 감사는 모두 정표화행으로서 각각 평가적 정표화행과 (화자중심의) 감정적 정표화행으로 분류된다(이혜용 2015, pp.64-65, p.141). 그 외 찬사는, 칭찬과 구분되어, (청자중심의) 감정적 정표화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이혜용 2015, pp.141-142). 그리고 칭찬(讚揚)과 감사(感謝)에 대한 대응어는 다음의 몇 가지 형식으로 접수(또는 수용)와 부정(또는 거절)이 표현될 수 있다(劉虹 2004, p.112). 왼쪽은 칭찬, 오른쪽은 감사의 예이다.

甲: 你這個人很有思想的。(칭찬 ^{讚揚})	甲: 真是太感謝你了。(감사 ^{感謝})
乙: 哪裡哪裡。(부정 ^{謙虛})	乙: 這算甚麼, 一點小事兒。(부정 ^{謙虛})
乙: 謝謝你的誇獎。(감사 ^{感謝})	乙: 哪兒, 我倒應該感謝你呢。(감사 ^{感謝})
乙: 這話不假。(동의 ^{贊同})	
乙: 你也不賴。(칭찬 ^{讚揚})	

소감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 예(1), (2)와 같이 시작한다. 수상에 동반되는 소감에 있어 ‘아, 아닙니다. 제가 필요.’라는 식의 부정은 시상 소감의 첫마디가 되지 못한다. 혹여 수행되더라도 ‘고맙습니다’란 접수 행위에 후행하지 그에 선행하지는 않는다.

감사 행위에 대한 대응의 소거 역시 그와 동일하다. 수상자의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에 대한 ‘천만에요’ 등의 대응은 시상이란 제도적 상황에서 부재하다. 이 같은 부재는 감사 행위에 대응할 화자가 부재한 데서 비롯된다. 시상이란 ‘칭찬’에 대해서는 그것을 접수하는 수상자가 존재하지만 수상자의 ‘감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응 — ‘접수(또는 부정)’ — 할 화자가 부재하다. 시상식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화자, 그리고 그것을 듣기만하는 수동적인 접수자가 있을 뿐이다.

감사 행위에 대해 Coulmas(1981)는 대조화용론의 관점에서 유럽의 몇몇 언어와 일본어를 대상으로 사과 행위와 함께 고찰하였고 Jung(1999)은 미국 영어에 보이는 감사 행위의 기능과 의사소통 의도 등에 따른 반응어의 선택 등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박찬옥(2015)은 회화교재에 국한하여 대화의 구조 속에서 ‘謝謝’가 갖는 기능 및 의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수상소감 같은 제도 담화를 대상으로 한·중 비교의 관점에서 진행한 감사 행위 고찰은 지금까지 그 시도가 부족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시상을 직접적인 칭찬의 행위, 수상을 직접적인 접수의 행위로 간주한다. 그리고 접수에 뒤따르는 수상 소감을 칭찬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대응이 없는 감사, 즉 의례적인 감사 행위로서의 소감이 시상식이란 제도적 상황 하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구성이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수집된 『청룡영화제』, 『대한민국 영화대상』, 『大衆電影百花獎』, 『金馬獎』에서 취하였다. 이 중 『청룡영화제』, 『대한민국 영화대상』은 한국의 영화 시상식이고 『大衆電影百花獎』과 『金馬獎』은 각각 중국대륙과 대만의 영화 시상식이다. 본고는 이들 네 시상식에서 총 12명의 주연배우 수상자를 선취하였는데, 12명은 각 3명씩 한국 남녀주연배우 수상자, 중국 남녀주연배우 수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12명의 상세는 아래와 같다.

[한국]

- | | |
|---------------------------|----------------------------|
| 1. 2006 제27회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 - 김혜수(02:01) ²⁾ |
| 2. 2008 제29회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 - 김윤석(02:10) |
| 3. 2010 제8회대한민국영화대상 남우주연상 | - 원 빈(02:09) |
| 4. 2010 제8회대한민국영화대상 여우주연상 | - 서영희(03:11) |
| 5. 2017 제38회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 - 송강호(02:12) |
| 6. 2017 제38회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 - 나문희(02:03) |

[중국]

- | | |
|-----------------------------|--------------|
| 1. 2009年 第46届金馬獎 最佳女主角獎 | - 李冰冰(02:41) |
| 2. 2010年 第三十届大衆電影百花獎 最佳男主角獎 | - 陳 坤(01:29) |
| 3. 2010年 第三十届大衆電影百花獎 最佳女主角獎 | - 趙 薇(03:16) |
| 4. 2011年 第48届金馬獎 最佳男主角獎 | - 劉德華(01:20) |
| 5. 2012年 第49届金馬獎 最佳男主角獎 | - 劉青雲(00:55) |
| 6. 2012年 第49届金馬獎 最佳女主角獎 | - 桂綸鎂(02:06) |

본고는 보다 자세한 언어 사용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수상자들의 발화 내용을 전사하였다.³⁾ 총 분량은 한국의 남녀주연배우들이 총 13분 45초, 중국의 남녀주연배우들이 총 11분 47초였으며 각 개인별 발화량은 상기 12명의 각 인명 옆 괄호 안에 명기하였다.

호명되기 전까지 배우들은 자신이 수상자란 점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점에서, 단상에서 행해진 소감 발화는 기본적으로 즉흥적인 자연담화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시상식 참석 전부터 이미 자신이 수상 후보란 점을 인지하고 있고 후보로 지명된 이상 배우라면 누구나 수상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소감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는 각자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수상

2) 기술의 편의상, 앞의 예(1), (2)를 포함하여, 예문 인용 시에는 약호로써 출처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K1.06.K”는 각각 “한국 배우 목록 1번. 2006년도 시상식. 배우의 이니셜 K”를 의미한다. 상기 나열된 분석 대상들을 약호로 바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배우] K1.06.K, K2.08.K, K3.10.W, K4.10.S, K5.17.S, K6.17.N

[중국 배우] C1.09.L, C2.10.C, C3.10.Z, C4.11.L, C5.12.L, C6.12.G

3) 전사내용 전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고유명사 등의 중국 전문 용어는 검색의 한계로 인해 편의상 발화된 음성을 토대로 임의 전사하였다.

소감은 (半)즉흥적 자연담화로 분류 가능하다.⁴⁾

또한 수상 소감은 시상식이란 제도에서 부여된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과 (그가 관여하는 말의 형식 간에) 밀접한 관련성(Hutchby & Wooffitt 1988, p.149)”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도 담화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자, 시상자, 수상자 등 이미 정해진 사회적 역할에 준해 “말차례가 사전 배분되어 있고(Atkinson and Drew 1979[Hutchby & Wooffitt 1988, p.149 재 인용])”, 그 같은 배분 구조 속에서 수행되는 화자들의 발화 내용 및 형식이 모두 시상식이란 상황을 규정하는 데 관여되어 있다(Drew & Sorjonen 2011, p.193 참고). 이에 본고는, 시상식이라면 소감을 밝힐 시간이 수상과 함께 의례적으로 주어지고 그 시간에 수행된 발화가 다시 시상식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상식 소감이 제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II. 화행과 역할

1. 감사행위

감사 행위에 대해 Searle(1969, p.67)은 다음과 같은 적정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명제내용 조건	청자 H에 의해 행해진 과거 행위 A가 있다
준비 조건	행위 A는 화자 S에게 이익이다 그리고 화자 S는 행위 A가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믿고 있다
성실성 조건	화자 S는 행위 A에 대해 감사해 하거나 고마워한다
본질 조건	화자 S의 발화가 감사나 고마움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4) 顧日國(2002, p.484, 表1)가 제시한 구어 형식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본고의 분석 대상은 경우에 따라 “제한적 화제—무준비(예: 개인 경험의 구술이나 체육 간담 회沙龍)” 또는 “제한적 화제—무 서면준비(예: 구술시험이나 현장 인터뷰)”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상기 조건은 하나의 발화문이 ‘감사’라는 발화수반력을 갖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다. 감사 행위의 조건에 관해서는 본고 역시 상기 Searle(1969)에 기대어 있으나 분석의 대상이, 고립된 문장이 아닌, 제도적 상황에서(半)즉흥적으로 이뤄진 제도 담화란 점에서 상기 조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이익의 내용 문제이다. Searle(1969)은 명제내용 조건으로서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과거 행위 A를 언급하였다.⁵⁾ Jung(1999, pp.171-173)에 기대어 볼 때, 시상식에서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A(시상)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겠다.

potential	or	<u>actual</u>
<u>physical</u>	or	mental
<u>direct</u>	or	indirect
<u>done by benefactor</u>	or	requested by the beneficiary

화자 S에게 시상은 그것이 주어‘진’ 행위란 점에서 실제적(actual)이고 트로피, 꽃다발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물리적(physical)이다. 또한 시상은 현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직접적(direct)이고, 수상자에 의해 요구된 행위가 아닌, 주최측에 의해 결정되는(done by benefactor) 행위이다.

둘째, 행위 A의 의도 및 제도성 문제이다. Searle(1969)의 행위 A가 기본적으로 청자 H의 의도를 전제한 것이라면, 시상식에서는 행위 A가 의도성이 없는 다수의 청자 H에 의해 행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관객은 배우에게 상을 주기 위해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다. 평가단 역시 어느 특정 배우에게 상을 주겠다고 생각하며 평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감이 라는 감사 행위의 추동 동기는 이익 제공자(benefactor)의 의도에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 점은, 객관적으로만 보면 화자 S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

5) 이혜용(2015, pp.172-173)은 이익 행위를 “청자가 화자에게 한/할 행위”로써 과거는 물론 미래에 있을 행위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에 대해, 시상은 기제작된 영화에 한해 행해‘진’ 행위이므로 행해‘질’ 행위로까지의 확장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은 행위 A가 이미 고마움을 표해야 하는 대상으로 제도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수상 소감에 표현된 감사의 의례성은 바로 이 같은, 청자 H에 의한 의도가 아닌, 행위 A의 제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자 H의 불확정성 문제이다. 상기 Searle(1969, p.67)의 조건에 따르면, 청자 H는 화자 S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다. 대화의 경우, 감사의 대상은 보통 대면하고 있는 상대를 지칭한다. 그러나 영화제 시상식은 그 대상이 불확정적이다. 화자 S의 ‘감사합니다’란 말이 영화 관객들을 지향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정되도록 평가해준 평가위원을 지향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 중인 단상 아래의 현장 관객(스태프, 팬, 일반 관객 등)을 지향할 수도 있고 카메라 너머로 시청 중인 TV 시청자를 지향할 수도 있다. 그 결과 화자 S는 다양한 청자 H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예 16~17 참고). 이는 감사를 표할 청자 H에 대해 화자마다 각기 다른 경중의 태도가 나타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2.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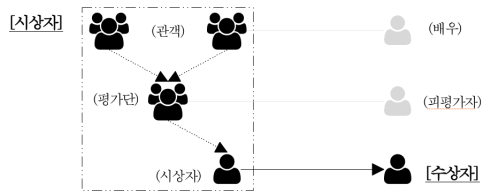
2.1 시상자 vs. 수상자

시상식에서의 주요 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시상자와 수상자가 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양분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인 행위의 관점에 보면, 이 두 역할의 관계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우선, 누가 시상자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무대 위의 시상자는 진정한 시상자인가? 다시 말해, 시상 결정권자인가? 아니다. 무대 위의 시상자는, 엄밀히 말해, 대리자이다. 준비된 봉투 속의 인명을 대신 호명하고 준비된 상패나 트로피를 단상에 올라온 수상자에게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수상 여부는 누구에 의해 결정될까? 일반적으로는 우선 각 영화제의 평가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평가단은 위촉된 평가위원으로만 구성되기도 하고 사전 평가위원과 현장(또는 동시간대) 투표단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그럼 평가단을 진정한 시상자로서 간주해도 될까? 아직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상자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평가 대상은 평가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립영화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평가 대상은 적정 수준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거나 홍보 등에 의한 인지도가 확보됐을 때라야 물망에 오른다. 이 같은 점은, 평가와 선발의 시발이 관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수상자는 대리자가 될 수 없다. 작품 활동에 의한 부재가 아닌 이상 수상은 대리자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동시에 수상자는 피평가자이다. 당해 연도에 개봉된 영화 속 기타 주연 배우들과 비교 평가된 피평가자 중 한 명이다. 더불어 수상자는 관객을 상대로 하는 배우이기도 하다. 그 결과 시상자와 수상자 간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 시상자와 수상자 간 관계

상기 그림에서 점선은 호명이나 트로피 수여와 같이 직접적인 대면은 하지 않더라도 시상에 직·간접적인 실행행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실선은 호명이나 트로피 전달과 같이 대면에 의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뜻한다. 이처럼 실질적인 시상 관행은 관객과 평가단에 의해 복합적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다층성은 앞서 언급된 청자의 불확정성과 맞닿아 있다.

2.2 연기자 vs. 자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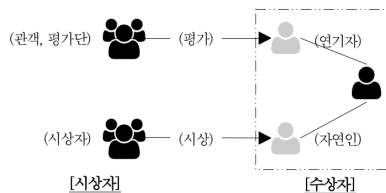
‘시상자 vs. 수상자’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시상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연기자 vs. 자연인’의 구분은, 역시 상대적으로, ‘수상자’의 역할과 언어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상자는 누군가를 분(扮)한 결과에 기초하여 대중으로부터 평가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수상자는 연기자이기 이전에 자연인이다. 극 속 인물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배우이자 인간으로서 일상의 희로애락을 느끼는 자연인이기도 하다. 더불어 누군가

의 딸·아들이자 엄마·아빠이기도 하고 누나·형 또는 친척이기도 하다.
이 같은 수상자의 역할은 아래 예처럼 소감에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 (3)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게, **배우: 로서** 인증을 해주신 것 같아서:, 어, 너무 기분이 좋구, …… 정말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 드리구요:, 집에 계시는:, 어 **우리 엄마**, 사랑하고, 진희야, 생일 축하해. ……(K4.10.S)
- (4) …… 很感謝, 金雞百花的所有的**評委老師, 大眾評委**, 你們給我這個機會。你們一定不會後悔。…… 還有, 我最重要的是, 我的家人, **我的母親, 我的兄弟姊妹**, 還有, **八歲的兒子**, 今天, 你應該很高興吧。(C2.10.C)

수상자는 영화라는 텍스트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인물이자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 그리고 배우란 업을 가진 자연인이다. 이 중에서 시상의 대상은 누구일까? 다시 말해, 시상은 누구를 칭찬하는 행위일까? 관객은 배우가 아닌 영화를 보러 영화관을 찾는다. 영화를 보고, 즉 영화를 구성하는 인물을 보고 그 다음으로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를 본다. ‘저 사람 슬프겠다, 아프겠다, 기쁘겠다’ 등을 먼저 생각하지 ‘저 사람 저거 짝느라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고생했겠다’ 등을 떠올리며 영화를 감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상은 영화 속 인물을 얼마나 잘 재현했는가에 대한, 배우를 칭찬의 우선 대상으로 놓는다.

하지만 수상자는 자신의 소감을 배우란 역할에만 기대어 수행하지 않는다. 시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극중 연기가 아닌 현실 속의 인간이 행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감사 행위로서의 소감 발화는 한 인간이 배우로서 인정받은 기쁨과 작업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더하여, 자연인으로서 가족에 대해 느낀 감정과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 등이 한 데 섞여있다. ‘연기자 vs. 자연인’의 구분과 그에 따른 평가 대상 및 시상 대상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그림 2] 수상자의 역할과 평가/시상의 대상 간 관계

III. 소감의 분석

배우에게 있어 주연배우상 수상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이다. 때문에 물망에 오른 주연배우들에게 수상 소감은 때가 되면 할 말로서 맘속에 준비되어 있지만 막상 수상이 현실로서 다가왔을 때는 벽찬 감정에 밀려 그것이 차분하게 표현되기란 쉽지 않다. 소감에 감탄사의 사용은 물론 매끄럽지 않은 발화가 중언부언 이어지거나 실수나 기쁨을 농담으로 포장하는 등의 발화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심리 상황에 맞닿아 있다.

- (5) 哎呀, 我這個: 畫了很黑的黑眼圈。一哭, 待會兒就變成國寶, 大熊貓了。對。其實我也不想哭, 但是我覺得, 這個, 這個票, 這個 這個有點殘忍。這, 這, 這種我覺得非常, 讓人-緊張, ……(C3.10.Z)

하지만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든지 소감은 수상 직후에 수행된다는 출현 위치상의 특징에 기대어 모두가 감사 행위로 해석된다. 아래는 그 같은 감사 행위가 어떠한 행위 구조를 갖는지, 또 감사의 대상(즉 청자 H)이 발화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중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제 시상상은 제도적인 칭찬이다. 이에 대한 수상자의 인식은 소감에서도 드러난다. 아래 예를 보자.

- (6) 오늘 저한테 주신 상이, 음, 단지, 어, 칭찬에 그치지 않고 저한테 줌.: 다른, 어:, 의미의 책임감을 부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다른 각오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K1.06.K)
- (7) 因為, 在這個: 學習的路上, 能夠在: , 現在拿到這個獎, 真的是給我一個, 非常重要的鼓勵, 然後我非常喜歡拍電影, 我會繼續努力的拍下去。(C6.12.G)

수상자는 타 화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고정된 말차례 속에서 소감을 발화한다. 안정된 말차례는 그것의 구성이 오롯이 화자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단 한마디로써 하나의 말차례를 구성하든지 신변의 여러 이야기를 끌어 들여 하나의 말차례를 구성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수상자에게 달렸다. 따라서 수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2~3분 동안 ‘감사하다’란 말 외에도, 작

품에 대한 해석, 자신의 고생담, 타인에 대한 칭찬 등을 소감 속에서 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행위가 다양하게 출현하더라도, 그것이 시상식이란 제도 속에서 단일 말차례로써 단일 화자에 의해 수상 직후 이뤄진다는 점은 그것을 감사라는 단일 수행 단위로서의 담화로 해석케 한다.

1. 소감의 행위구조

감사 행위로서의 소감은 한·중 간 대체로 공통적인 구조를 갖는다. 아래의 예를 보자.

- (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 이 상은, 뭐 제가 받아야될 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열심히는 했지만, 그리고, 어: 정말: 욕심을 냈던, 작품이었지만, 어:,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정말, 어:, 좋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배우가 했더라도, 어: 정말 빛날 수밖에 없었던, 역할이었습니다. 어:,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던: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함께:, 작업을 했던, 빛나는 배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작업을 하면서 매 순간, 정말 사랑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스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상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주신 상이, 음:, 단지:, 어:, 칭찬에 그치지 않고, 저한테 쯤:, 다른, 어:, 의미의 책임감을 부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다른 각오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를:, 보다 의미 있는, 작품으로 빛나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13년 동안, 함께 울어주고, 동고동락해준:, 성혜씨한테, 늘 마음으로 **고맙구요**, 항상 힘이 돼주는 가족 여러분들께, 사랑한다는 얘기 전하고 싶구요, 곁에 있어주는 사랑하는 분들께, 기쁨을 나누고 싶구요, 오늘의 영광과 **감사는**, 최동훈 감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K1.06.K)

- (9) (哭著) 我沒有想到, 我有可以再上來的機會. am:, 我- 我不知道該說甚麼sorry, 哈, 我這是第二次來參加, 啊:, 金馬獎. am:, 我- 真的沒有想到可以, 可以得到這份肯定. 在這裡我想說, 首先要**感謝**所有的評委. 請允許我在這裡給你們鞠個躬, 你們, 也辛苦了.(掌聲) 我覺得, 人生真的, 很- 很有意思. 我很**感謝**在我身上, 發生的那些, 戲劇性的故事. 人生有很多可能, 也有很多不可能. 藝術沒有最好, 只有更好. 我沒有想過, 我-

我- 我要說甚麼, 所以, 我- 我在這裡**感謝**, 我的老闆, 華誼兄弟。sh- 因為你們製作了這樣好的一個電影。**感謝**我的導演, 啊:, 陳國富, 高群書兩位。**感謝**所有的:, 以及拍戲的伙伴, 那麼多的好演員。涵子, 有朋, 周迅。英達老師, 志文老師, 還有哪些:, 默默無聞的:, 在:, 工作, 在我們背後工作的人們。**謝謝**你們。我才有機會有站在這裡。拍這個戲真的, 真的真的, 很辛苦, 也蠻折磨的。可是今天我站在這裡。我覺得, 我還是, 那個幸運的。因為大家都很辛苦, 都付出了很多:, am:, sorry, 請允許我在這裡。**感謝**一下, 我的團隊。因為你們對我的不離不棄, 才使我有力量。有信念, 有堅持走到今天。**感謝**我的經紀人, 李玟。姬夏新, 兩位。我知道這個時候, 你們比我還難過。可能你們也在流淚。真的不好意思。**謝謝**大家。**謝謝**。(C1.09.L)

예(8), (9)와 같이 수상 소감에는 많은 ‘감사하다’ 또는 ‘고맙다’, ‘感謝’ 또는 ‘謝謝’(이후 ‘감사하다’와 ‘感謝’로 통일)가 출현한다. 이에 소감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다·感謝’를 중심으로 한 행위 연쇄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감을 쓰는 ‘감사하다·感謝’를 ‘감사H(nitial)’, 소감을 맺는 ‘감사하다·感謝’를 ‘감사E(ending)’라고 할 때(예 8, 9의 음영 부분), ‘감사H’와 ‘감사E’에는 그에 호응하는 빈어나 부사어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볼 수 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 등의 정보가 부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H’와 ‘감사E’를, 사의 표현 그 자체보다는, 사의를 표하기 ‘시작한다/끝맺는다’는 일종의 선언적 신호로 해석하게 한다.

이 같은 기능의 ‘감사H’와 ‘감사E’는 예(8)과 같이 말차례 앞뒤에 정형적으로 출현하기도 하고 예(9)와 같이 ‘감사H’ 또는 ‘감사E’만 출현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빈어를 갖는 첫 번째 ‘감사하다·感謝’가 소감을 개시하는 ‘감사H’의 기능까지 겸한다고 볼 수 있다. ‘감사H’와 ‘감사E’사에서, 빈어 및 부사어를 갖는 ‘감사하다·感謝’를 ‘감사C(ontent)’로 표현한다면 소감의 구조는 ‘감사하다·感謝’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삼분될 수 있다.

감사H + 감사C¹ + 감사C^x + 감사E

상기 행위구조 속에서 ‘감사H’, ‘감사C’, ‘감사E’ 전후로 출현하는 기타 행위들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관찰된다.

먼저 ‘농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감사’ 전후에 출현한다.

- (10) 예., 감사합니다. 어 올해, 제가 뭐 저의: 해: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올해 그냥, 어 토정비결에, 저의 해라고, 생애 단 한 번 밖에 없는, 저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구요, ……(K2.08.K)

- (11) 拍電影, 不是爲了要拿獎的. e:, 我是開玩笑, 當然要拿獎. e:- 我::sh-, 我要感謝金馬獎, ……(C5.12.L)

여기서 농담은, 격식을 갖춘 장에서 진중한 모습만을 보일 경우 자칫 화자와 청자 간에 경색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오만한 태도로 오인될 여지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좌중의 청중)로부터 웃음을 유발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일소하는데 일조한다고 본다. 이에 소감에서의 농담은 대개 자신을 희화(戲畫)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만큼 상대를 높이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감사에 관한 ‘부연’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수상 내원(來源)에 대한 ‘설명’이나 수상작에 대한 ‘해석’, 타인에 대한 ‘격려’, 특정인에게 감사해 하는 이유의 ‘제시’ 등, ‘감사C’ 내에서 ‘감사하다·感謝’에 뒤따르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내원 설명, 해석, 격려 등의 부연은 주로 한국 소감에 출현하고 이유 제시는 주로 중국 소감에 치중해서 출현하는 경향을 띤다. 먼저 내원 설명에 관한 예이다.

- (12) …… 그거를, 그런 순간을 만들어 내는 건, 한 사람::의, 어 능력이 아니라, 어:::, 영화에 참여- 했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집중력이, 그런 순간 순간:들:을, 어 만들어내는 데, 거기에 함께 했던 그 경험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이었구요, 그리고:, 음::, 액션 씬을 찍을 때, ……(K2.08.K)

내원 설명은 선정 요인에 대한 수상자의 개인적인 의견 피력을 가리킨다. 예컨대, 예(12)에서는 작품에 대한 ‘참여자들의 집중력’을 수상의 내원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현장 관계자들의 열의와 집중을 한 요인으로 짚어내는데, 이처럼 현장 관계자가 아니라

면 알 수 없는 것을 (평가자의 관점이 아닌) 수상자의 관점에서 현장 밖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석’의 예이다.

- (13) …… 에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드리구요. …… 어: 사실 택시 운전사라는, 예: 영화:: 가, 예:: 사실은, 예:: 이:- 뭐 정치다 역사, 뭐 이런: 거::를, 어: 뒤로 하고, 어:: 우리- 이의,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아:: 정말,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을, 어 영화에 담고 싶었습니다. 어::, 이 트로피도 중요하고, 또:: 뭐, 뭐 천 만 관객도 중요하지만, ……(K5.17.S)

예(13)에서 화자는 자신의 작품을 타자화시켜 ‘그 영화는 이런 영화다’, 즉 ‘영화 택시 운전사는 (5·18 민주항쟁에 대해 갖는)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한 영화다’란 나름의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점을 부각시키려한 자신의 노력도 함께 언급한다. 화자는 이를 통해서 작품을 이미 본 사람들과는 공감을 유도하고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겐 작품에서 눈여겨봤으면 하는 점을 미리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격려’이다.

- (14) …… 아::, 동료들도 많이 가고, 또, 저는 남아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데, 이렇게, 늙은 나문희에게:, 큰 상을 주신, 우선, 청룡 영화제, 그: 음:, 주체 분들한테- 테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저는 남아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저희, 후배들 보면, 너무 연기를 잘 해서, 자랑스럽고, 정말 한국, 어:: 영화 배우들이, 전 세계 배우들 중에서, 제일 연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아 캔 스피커서 상을 타게 해주신, ……(K6.17.N)

예(14)에서 화자는 시상에 대한 감사 표현에 이어 ‘후배들이 연기를 매우 잘 한다’는, 자칫 감사 행위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격려’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자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격려 전에 발화된 “동료들도 많이 가고”, “저는 ……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데” 등으로 미루어 늙어서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제시이다. 여기서 “후배들”은 일반적인 후배 연기자들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후배들”, “한국 …… 영화배우들”, 그리고 자신이 출현한 “아 캔 스피크” 간의 지시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후배들”은 곧 아이 캔 스피크 작업을 함께 한 후배 배우들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된 수상 내원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자신의 수상이 혼자만의 힘에 기댄 것이 아닌, 모두의 연기력에 힘입은 결과란 점을 함의한다.

다음으로 ‘이유’에 관한 예이다.

- (15) …… 但是我: , 首先想講的是: , 我要感謝: , 星光國際, e- he 星-星光: 傳- 傳媒. @@ 它投資了. 花木蘭這部電影, e- e: 我感謝王澤, 宋光橙, 趙-趙-趙總和, 馬楚成導演. 因為我覺得, 他們在這樣的. 情況下, 投資花木蘭這樣的一部電影. 我覺得是: , 哈: 我覺得是:是: , 是一個非常勇敢的舉措. 我也非常有機- 有榮幸能夠扮演這個: , 非常傳奇的人物. 通過- 通過扮演她: , ……(C3.10.Z)

예(15)에서 화자는 감사를 표현한 뒤 곧바로 “它”, “他們” 등의 대명사로써 자신이 왜 감사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예(15)에서 화자가 “星光國際傳媒”에 감사해하는 것은 “그들(它)”이 투자(投資)를 했기 때문이고 뒤이어 “王澤, 宋光橙, 趙總和, 馬楚成導演”에 감사해하는 이유는 “그들(他們)”이 고난스러운 작업임에도 용감한 결단(勇敢的舉措)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의 명시는, 수상이 타인의 도움과 지지에 기대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면 상기 내원의 설명과 분모를 공유한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유의 구체적 인 제시는 특정인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정서를 공개하고 드러나지 않은 제작 과정상의 내막과 그에 대한 특정인의 기여도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동시에 특정인에 대해 ‘잘 했다’는 예찬도 함의하고 있어 ‘감사C’ 내의 기타 부연 행위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2. 감사대상의 순서

소감의 행위구조와 달리, 감사 대상으로서 누구를 먼저 언급하는가는 한

· 중 소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청자의 불확정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대상의 언급 순서에 따른 수상자의 심리적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그림 1, 2]에서 보인, 시상자와 수상자 간 관계의 다층성은 수상자가 시상자군(群)에서 누구를 먼저 언급하는가(즉, 수상의 공을 누구에게 먼저 돌리는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단순한 순서의 문제 같지만 그 이면에는 수상자가 자신의 역할을 어떤 순서로 규정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상식을 무엇으로서 인식하는지를 함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 대상은, 수상자를 중심으로 할 때, 대표, 감독, 배우 등 영화 관계자들을 ‘스태프·지인’으로, 영화제 주관부서, 현장 관객 및 투표인단 등 영화제 관계자들을 ‘평가단·현장 관객’으로, 관객과 팬클럽 등을 ‘관객’으로, 그리고 부모, 형제, 자식 등을 ‘가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영화 중심에서 보면, ‘스태프·지인’은 ‘영화 생산자’로, ‘평가단·현장 관객’은 ‘영화 비평가’로, ‘관객’은 ‘영화 소비자’로 범주화할 수도 있다. 이에 기초하여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6) 아:, 제가 여기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아 켄 스피클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흔 여섯이신, 우리- **친정 어머니**::, 어:: 하느님께,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웃음) (박수) 아::, 정말 저는 오늘, 마음을 비우고 와야지, 많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되니까:,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아::, 동료들도 많이 가고, 또, 저는 남아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데, 이렇게:, 늙은 나문희에게:, 큰 상을 주신, 우선, **청룡 영화제, 그 음:, 주체 분들**한테- 테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저는 남아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저희, 후배들 보면, 너무 연기를 잘 해서, 자랑스럽고, 정말 한국:, 어:: 영화 배우들이, 전 세계 배우들 중에서, 제일 연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아 켄 스피클에서 상을 타게 해주신, 우리 **김현석 감독님**, 또: 우리: **이재훈 배우님**::, 또:, **모든 스태프**:과:, 또 **제작사**, 그리고, 어::, **연기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구요, **나의 친구 할머니들**, 제가 이렇게 상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K6.17.N)

예(16)에서, 화자의 첫 번째 감사 대상은 “관객”이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 “영화제 주체”, “감독” 등의 스태프가 뒤를 잇는다. 이 같은 감사 대상의 출현 순서는 각 배우들의 소감마다 출현 순서를 달리한다. 하지만 상기 범주 분류를 토대로 누구를 첫 번째로 언급하고 누구를 두 번째로 언급하는지 관찰해보면, 화자가 공을 누구에게 먼저 돌리는지 대략적인 가늠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언급된 횟수를 바탕으로, 한국 배우들의 소감에서 언급된 감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배우들의 수상소감에서 보인 감사 대상의 순서

	스태프·지인	평가단·현장 관객	관객	가족
첫 번째 감사 대상	4		2	
두 번째 감사 대상		1	2	3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 대상의 언급 횟수 합계	4	1	4	3
언급의 우선순위	1	4	2	3

〈표 1〉에 따르면, 첫 번째 감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범주는 ‘스태프·지인’으로서 총 네 번이고 ‘관객’이 그 다음으로서 총 두 번이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언급된 감사 대상으로는 ‘가족’이 총 세 번으로 가장 많고 ‘관객’이 총 두 번으로 그 다음이다. 이에 따른 범주별 순위는 ‘① 스태프·지인 ≥ ② 관객 > ③ 가족 > ④ 평가단·현장 관객’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영화 중심의 범주 분류에 기대면 ‘① 영화 생산자 ≥ ② 영화 소비자 > ③ 가족 > ④ 영화 비평가’로 재정리된다. 한국 배우들의 소감에는 영화 생산자, 즉 수상자 자신과 함께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영화 소비자인 관객이 그 다음으로 비등하게 언급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 같은 경향은, 첫째, 화자가 소감에서 이들을 감사 대상으로서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자신을 피평가자가 아닌 연기자로서 먼저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영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수상의 내원(來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시상식을 공적 칭찬(즉, 수상)의 공유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평가단·현장 관객’, 즉 영화 비평자가 ‘가족’보다도 후행한다는 점은, 수상을 결정하는 평가의 주체가 ‘관객’(즉, 영화 소비자)이라는 화자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 (17) (邊笑邊哭) e::, 非常, 非常, 謝謝, **金馬獎的評審**. 因為, 在這個: 學習的路上, 能夠在:, 現在拿到這個獎. 真的是給我一個, 非常重要的鼓勵. 然後我非常喜歡拍電影, 我會繼續努力的拍下去. **謝謝金馬獎評審**. (掌聲) 然後:, 我要非常謝謝**楊雅結導演**, 你寫了一個很棒的故事跟, 角色. 然後你給了我, 兩位**最棒的男演員**, 跟, **最棒的女演員**. 張孝全, 鳳小岳, 張書豪. 沒有你們, 對於表演的專注跟熱情, 我- 我不會有一次這麼棒的表演經驗, 謝謝你們. 然後:, 我要謝謝:, 女朋友男朋友劇組的:, **所有工作同仁**, 辛苦你們了. 然後:, 我要謝謝, 我的, 像我父親一樣的老師, **易智言導演**, 如果沒有你, 陪著我, 一路走來, 我不會認識電影, 認識表演, 認識我自己. 然後:, 我終於得獎了. 然後:, 我要謝謝, 一路上幫助過**我的朋友們**, 啊:, 我最-, 甜美的耶魯汀小姐, 陳一薇小姐, 菲菲, 啊:, 我一片空白, 靜宜, 小綠, 啊:, **我的助手們**, 然後曾經幫助過**我跟我一起合作過的演員跟導演們**, 你們給我很多很多的愛, 我都收到了. 最後, 最後, 我要:, 謝謝**我的父母親**, am:, 你們忍受了很多:, 寂寞也好, 或著是女兒的壞脾氣也好, 就只爲讓, 女兒做自己最喜歡做的事情. 謝謝. (C6.12.G)

예(17)에서 화자는 “所有的評委”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 “老闆”, “導演”, “伙伴”, “背後工作的人們”, “團隊”, “經紀人” 등을 차례로 언급한다. 앞서 한국어 소감에 대해 논의된 바와 같이, 중국 배우들의 소감에서 각각 다르게 출현하는 감사 대상을 수상자 및 영화 중심으로 범주화해보면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관찰된다.

〈표 2〉 중국 배우들의 수상소감에서 보인 감사 대상의 순서

	스태프·지인	평가단·현장 관객	관객	가족
첫 번째 감사 대상	1	5		
두 번째 감사 대상	4	1		1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 대상의 언급 횟수 합계	5	6		1
언급의 우선순위	2	1	4	3

<표 2>에 의하면, 첫 번째 감사 대상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범주는 ‘평가단·현장 관객’(총 5회)이고 ‘스태프·지인’(총 1회)이 그 다음이다. 분석 대상 내에서 ‘관객’이나 ‘가족’이 첫 번째 감사 대상으로 언급된 예는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언급된 감사 대상으로는 ‘스태프·지인’이 총

4회로써 가장 많고 ‘평가단·현장 관객’, ‘가족’이 각각 총 1회로써 그 뒤를 잇는다. 이를 수상자 중심으로 분류하면 ‘① 평가단·현장 관객 > ② 스태프·지인 > ③ 가족 > ④ 관객’ 순으로 정리되고, 영화를 중심으로 보면 ‘① 영화 비평가 > ② 영화 생산자 > ③ 가족 > ④ 영화 소비자’ 순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어 소감에서 수상자는 첫 번째 감사 대상으로서 영화 비평자를, 두 번째 감사 대상으로서 영화 생산자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영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한국 배우들의 소감과 대별된다. 한국 배우들의 소감에서 후순위에 위치했던 영화 비평자가 중국 배우들의 소감에서는 최우선순위로 언급되고, 반대로, 소감의 서두에서 영화 생산자와 함께 언급되던 영화 소비자는 가장 후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화자는 시상식이란 장(場)에서 자신을 연기자가 아닌 피평가자로서 먼저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관객’이 우선 감사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화자가 평가 주체를 영화 소비자가 아닌 영화 비평가로 생각한다는 화자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둘째, 그러한 점에서 화자는 시상식을, 공적 칭찬의 공유 공간으로 생각하기보다, 평가를 받는 장으로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IV. 나가며

지금까지의 한국과 중국의 남녀주연배우 수상자들이 영화제 시상식에서 표한 소감에 대해 감사 행위와 제도성이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수상 소감에서의 감사 행위 분석에는 수상자에게 이익 되는 행위의 내용, 행위의 의도와 제도성, 청자의 불확정성 문제 등과 함께 그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의 역할로서, 시상자는 관객, 평가단, (물리적)시상자로 나뉘고 수상자는 그에 대응되는 배우, 피평가자, (물리적)수상자로 나뉜다. 수상자는 다시 배우라는 직업의 종사자와 그 이전의 자연인이란 신분으로 나뉜다.

이를 토대로, 한·중 남녀주연배우들의 소감을 행위의 구조와 감사 대상의 언급 순서란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먼저 행위 구조의 측면에서, 소감은 여러 감사 행위들이 중첩된 ‘감사I + 감사C’ + …… 감사C^x + 감사E’의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농담’, ‘설명’, ‘해석’, ‘격려’, ‘이유’ 등의 부연된 행위들이 감사I와 감사C에 앞서거나 뒤를 잇는다. 행위 구조 자체는 한·중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연된 행위 중 ‘내원’, ‘해석’, ‘격려’는 상대적으로 한국 소감에서,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국 소감에서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 대상은 수상자를 중심으로 ‘스태프·지인’, ‘평가단·현장 관객’, ‘관객’, ‘가족’으로 범주 분류가 가능하고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생산자’, ‘영화 비평가’, ‘영화 소비자’, ‘가족’으로 범주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 소감에서의 감사 대상은 ‘스태프·지인 ≥ 관객 > 가족 > 평가단·현장 관객’(즉, 영화 생산자 ≥ 영화 소비자 > 가족 > 영화 평가자)의 언급 순서를 보였고 중국 소감에서의 감사 대상은 ‘평가단/현장 관객 > 스태프/지인 > 가족 > 관객’(즉, 영화 비평가 > 영화 생산자 > 가족 > 영화 소비자)의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한국의 주연배우들은 자신을 연기자로 설정하고 영화 소비자(관객들)로부터 주어진 공적 칭찬을 영화 관계자들(생산자로서의 스태프 등)과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서 시상식을 간주하는 경향을 갖는 반면, 중국의 주연배우들은 자신들을 피평가자로 인식하고 영화 평가자(평가단·현장 관객 및 투표인단 등)들로부터 공적 평가를 받는 장으로서 시상식을 간주하는 경향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상기 고찰은 상황과 언어 행위 간의 밀접한 관계를 함축한다. 동일한 형식을 띠더라도 감사 행위는 그것이 어느 상황 속에서 수행된 것인지에 따라 기여하는 바가 달라진다고 본다. 본고에서의 감사 행위는, 그것이 수상 직후에 수행된다는 점이나 소감 발표라는 안정된 발화 기회 속에서 수행된다는 점, 그리고 트로피를 직접 건네주는 화자 바로 앞의 시상자가 아닌, 그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관객과 평가단 등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대상에게 수행된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시상식이란 제도를 구성하는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며 시상식이 시상식으로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부록. 한·중 영화제 수상 소감 원문

1(K1.06.K). 2006 제27회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김혜수(<https://youtu.be/qsGCjN315f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 이 상은, 뭐 제가 받아야될 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열심히는 했지만, 그리고:, 어: 정말: 욕심을 냈던, 작품이었지만, 어:, 정말 좋은 작품 이었고, 정말, 어::, 좋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배우가 했더라도, 어: 정말 빛날 수 밖에 없었던, 역할이었습니다. 어:,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던: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함께:, 작업을 했던, 빛나는 배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작업을 하면서 매 순간, 정말 사랑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스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상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주신 상이, 음:, 단지:, 어:, 칭찬에 그치지 않고, 저한테 쫘: 다른, 어::, 의미의 책임감을 부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다른 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를:, 보다 의미있는, 작품으로 빛나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13년 동안, 함께 올려주고, 동고동락해준:, 성혜씨한테, 늘 마음으로 고맙구요, 항상 힘이 돼주는 가족 여러분들께, 사랑한다는 얘기 전하고 싶구요, 곁에 있어주는 사랑하는 분들께, 기쁨을 나누고 싶구요, 오늘의 영광과 감사는, 최동훈 감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K2.08.K). 2008 제29회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김윤석(<https://youtu.be/r5sWcfUhBlc>)

예:, 감사합니다. 어 올해, 제가, 뭐 저의: 해: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올해 그냥, 어 토정비결에, 저의 해라고, 생애 단 한 번 밖에 없는, 저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구요, 아:: 하::, 영화를 찍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는 순간들이, 많은 경험들 중에서 특히 추억자는:, 에 사람의 열기로:, 정말:, 어:::, 손을 대면 데일: 것: 같-을 정도의 뜨거운 열기:, 까지도 올라가 봤고, 그제, 0.5초 만 에, 영화로 떨어지는 차가운, 그런 냉기: 의 순간도, 경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런 순간을 만들어 내는 건, 한 사람::의, 어 능력이 아니라, 어:::, 영화에 참여- 했던, 모든 사람: 들::의, 어떤 집중력이, 그런 순간순간들:을, 어 만들어내는 데, 거기에 함께 했던 그 경험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이었구요, 그리고:, 음::, 액션 씬을 찍을 때, 이상하리만치 정말, 이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건지:, 오해가 될 정도로:, 절묘한 호흡 을 맞추어 줬던, 하정우씨와의 그- 으::, 야릇한 경험은, 평생 잊지 못 할 것 같구요, 그리고 너무나, 어: 극한의, 순간의 연기:가 요구되었던 역할을 잘 해준 서영희 씨, 에 너무 감사드 리고,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어:::, 나홍진 감독::남:과, 비단길 식구들, 그리고:, 쇼박스 벤 터지 홀딩스:, 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상은 특별히, 오늘, 어::, 단 한 분,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K3.10.W). 2010 제8회대한민국영화대상 남우주연상: 원 빈(<https://youtu.be/Xcnq4rpoA2c>)

감사합니다. 아:하:, 참:, 어::,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어:, 제가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또:, 음:, 어렵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큰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고, 어:, 영화를 찍는 동안, 어:, 정말:, 튼튼한 지붕 역할을 해주셨던, 어: 저희 오피스: 픽처스의 이태훈 대표님, 그리고, 어:, 멋진 아저씨를 만들어주셨던, 어, 이정봉 감독님, 그리고, (울먹) 아:, 참:, 제가, 아:, 박종률 무술 감독님, 또:, 이태훈 촬영 감독님, 그리고:, 아:, 저의 신용 선생님, 또:, 어 이상준: 어: 오디오 감독님, 그리고, 아:, 작지만, 아 너무나 큰 배우였던, 우리 새론이, 어:, 너무 고생 많았고, 음:, 정말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저씨를, 너무나 빛나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어:, 정말 외롭지 않게, 외롭지 않은 배우로 살 수 있도록, 아: 늘 응원해 주시는, 저의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K4.10.S). 2010 제8회대한민국영화대상 여우주연상: 서영희(<https://youtu.be/80eFc2H5bAk>)

우하, 감사합니다. (박수) 어, 음, 이제껏, 어:, 왜 다른 사람들은, 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쉽게, 도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이, 높고 험난할까,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자질이 없는 건가, 그만 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솔직히, 꿈은 꿔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음:,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게, 배우:로서 인증을 해주신 것 같아서:, 어, 너무 기분이 좋구, 앞으로는:, 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구, 어떻게 하면 연기를 더, 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구:, 열심히 연기 하겠습니다. 아, 하:, 너무 좋은데:, 생각이 아무 것도 안 나요. (웃음) (박수) 음, 음:, 지금 안 계시지만:, 장철수 감독님, 음:, 저 믿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렇게 상 받을 수 있는 건, 다 감독님의 힘인 것 같구요, 감독님의 배려, 감독님의 (한숨)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껏: 함께 했던: 감독님들, 음:,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서 이인 분, 두 명의 몫을- 세 명의 몫을 해야했던, 많은 스태프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음:, 정훈 오빠 너무 고맙구요, 그리고:, 오 대표님, 그리고: 최현덕 이사님, 그리고:, 어 우리 매니저 병아, 그리고:, 음 지선, 재선:, 그리고:, 서우, 아:,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 옆에:, 지금 현재, 있어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빼먹은 사람 없나, (웃음) 아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정말, 저에게 이런:- 상이 주어진다면, 생각했을 때, 어 근데-, 아: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꼬집어- 봐야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기쁘기만 하네요. 너무 길게 얘기했나봐요. (웃음) 정말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드리구요:, 집에 계시는:, 어 우리 엄마, 사랑하고, 진희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5(K5.17.S). 2017 제38회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송강호(https://youtu.be/Hc18_s7aw74)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는:, 솔직히 이제, 예:, 뭐랄까요, 어 그동안, 그 상처와, 어:, 많은 고통 속에: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어 이 영화:를 통해서 조-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시간방진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 영화가 개봉: 후에, 오히려, 어:, 관객 분들이, 저희들에게, 예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애썼다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몸 둘 바를 모르

했습니다. 어: 어: 그만큼,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이, 에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따뜻했습니다. 에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드리구요. 예: 올해는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오늘:, 상도 그렇고 여러: 어, 어, 상을 받고, 뭐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계신, 존경하고 정말 훌륭한, 우리 동료 배우 분들, 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 사실 택시 운전사라는, 예: 영화: 가, 예: 사실은, 예: 이:- 뭐 정치다 역사, 뭐 이런: 거:를, 어: 뒤로 하고, 어: 우리- 이의,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아: 정말,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을, 어 영화에 담고 싶었습니다. 어:, 이 트로피도 중요하고, 또: 뭐, 뭐 천 만 관객도 중요하지만, 어 올 한 해, 그 미안한 마음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 되새겨 봤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마음은, 어: 위대한 관객 여러분들이, 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K6.17.N). 2017 제38회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나문희(<https://youtu.be/SZ5lgLXWPhs>)

아:, 제가 여기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아 캔 스피크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흔 여섯이신, 우리- 친정 어머니:, 어: 하느님께,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웃음) (박수) 아:, 정말 저는 오늘, 마음을 비우고 와야지, 많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되니까:,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아:, 동료들도 많이 가고, 또, 저는 남아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데, 이렇게-, 늙은 나문희에게:, 큰 상을 주신, 우신, 청룡 영화제, 그: 음:, 주체 분들한테- 테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저는 남아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저희, 후배들 보면, 너무 연기를 잘 해서, 자랑스럽고, 정말 한국-, 어: 영화 배우들이, 전 세계 배우들 중에서, 제일 연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아 캔 스피크에서 상을 타게 해주신, 우리 김현석 감독님, 또: 우리: 이재훈 배우님:, 또:, 모든 스탭:과:, 또 제작사, 그리고, 어:, 연기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구요, 나의 친구 할머니들, 제가 이렇게 상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C1.09.L). 2009年 第46屆金馬獎 最佳女主角獎: 李冰冰(<https://youtu.be/RgZAx37maKE>)

(哭著) 我沒有想到, 我有可以再上來的機會. am:, 我- 我不知道該說甚麼sorry, 哈, 我這是第二次來參加, 啊:, 金馬獎. am:, 我- 真的沒有想到可以, 可以得到這份肯定. 在這裡我想說, 首先要感謝所有的評委, 請允許我在這裡給你們鞠個躬, 你們, 也辛苦了. (掌聲) 我覺得, 人生真的, 很- 很有意思. 我很感謝在我身上, 發生的那些, 戲劇性的故事. 人生有很多可能, 也有很多不可能. 藝術沒有最好, 只有更好. 我沒有想過, 我- 我- 我要說甚麼, 所以, 我- 我在這裡感謝, 我的老闆, 華誼兄弟. sh- 因為你們製作了這樣好的一個電影. 感謝我的導演, 啊:, 陳國富, 高群書兩位. 感謝所有的:, 以及拍戲的伙伴, 那麼多的好演員. 涵子, 有朋, 周迅. 英達老師, 志文老師, 還有那些:, 默默無聞的:, 在:, 工作, 在我們背後工作的人們. 謝謝你們. 我才有機會有站在這裡. 拍這個戲真的, 真的真的, 很辛苦, 也蠻折磨的. 可是今天我站在

這裡，我覺得，我還是，那個幸運的。因為大家都很辛苦，都付出了很多；，am:，sorry，請允許我在這裡，感謝一下，我的團隊。因為你們對我的不離不棄，才使我有力量。有信念，有堅持走到今天。感謝我的經紀人，李玹，姬夏新，兩位。我知道這個時候，你們比我還難過。可能你們也在流淚。真的不好意思。謝謝大家。謝謝。

2(C2.10.C). 2010年 第三十屆大眾電影百花獎 最佳男主角獎: 陳 坤(<https://youtu.be/xh6xgilbC8U>)

感謝現場，所有的朋友，這個獎我特別想要。e: 電影，一百年以上的藝術。很多的前輩，很多的藝術家，前赴後繼。我呢，是滄海一粟。但是，我很有夢想。我們很年輕，但是，我們很希望在未來的電影事業上，能夠做得好一點。在這裡，很感謝，金雞百花的所有的評委老師，大眾評委，你們給我這個機會。你們一定不會後悔。恩。(掌聲)也感謝在坐: 下面所有朋友我的同學，趙薇，所有的: 在場同學，所有的曾經跟我一起共事過的演員和老師，朋友們，是你們的教育，讓我在: 表演的藝術上，一直在學習。在這裡，我也不能免俗，在電視機前面，有很多我珍貴的朋友，從小長到大的老師，am: 電影圈的老師。還有那些支持我的，所有影迷朋友，投票朋友們。還有，我最重要的是，我的家人，我的母親，我的兄弟姐妹，還有，八歲的兒子，今天，你應該很高興吧。我，未來會加油的。再次感謝，在坐的所有朋友，我會，更加努力的。

3(C3.10.Z). 2010年 第三十屆大眾電影百花獎 最佳女主角獎: 趙 薇(<https://youtu.be/56ZdiZ1BT8>)

哎呀，我這個: 畫了很黑的黑眼圈。一哭，待會兒就變成國寶，大熊貓了。對。其實我也不想哭。但是我覺得，這個: 這個票:，這個-這個有點殘忍。這-，這-，這種我覺得非常:，讓人-緊張，然後非常讓人，感慨這樣的。而且，之前，很多:，得獎的人，上台的人，他們都讓我:，非常地感動。其實我:，真的有很多話: 想講。但是我:，首先想講的是:，我要感謝:，星光國際，c- he 星-星光: 傳-傳媒。@@ 它投資了，花木蘭這部電影，e- e: 我感謝王澤，宋光橙，趙-趙總和，馬楚成導演。因為我覺得，他們在這樣的，情況下，投資花木蘭這樣的一部電影，我覺得是:，哈: 我覺得是:是:，是一個非常勇敢的舉措。我也非常有機，有榮幸能夠扮演這個:，非常傳奇的人物。通過- 通過扮演她:，體驗了很多:，作為我趙薇本身來說，一生中難以:，哇，好花，幫我擦一下，(觀眾大笑)不是可以剪接的嗎?(觀眾大笑) 誒，誒，快點-快點來個特寫，我對著大螢幕擦擦。..... 我從頭講。哎呀，真是，完全失策。哎，下面有沒有黑眼圈了?(觀眾大笑) 謝謝。從來，哦，不從來了。這樣子的。e::m:: 我:，還有一個非常要感謝的，一個對象。就是:，十四萬: 投我票的: 觀眾朋友，以及這，一百零一位，e: 大眾評委。(哭著)對不起。其實我不想佔用大家這麼長時間。這樣，em，謝晉導演講我一句話，很老的一句話，(哭著)可以剪接的，啊。剪掉。@@ 這樣，金杯銀杯不如觀眾的口杯。我覺得，這麼多年來，我能夠一直走到今天，包括今天可以拿到這個金雞百花獎。我第一次拿到。這是因為這: 這-十一年，觀眾給我的，愛護，和支持。(哭著)(掌聲)讓我從一個，很年輕，很無知的一個，小演員，走到了今天，謝謝所有的，觀眾朋友。謝謝。

4(C4.11.L). 2011年 第48屆金馬獎 最佳男主角獎: 劉德華(<https://youtu.be/IZfpKANFZOc>)

我都說了，我就:，我就自己付錢，拿影帝。真的，我- 我- 我- 老- e- e-，老實講，我真的，真的完全沒想到，然後我，我看，我看了鋼琴。然後:，啊:，跟小蘋果說，我愛他。啊:，謝謝，

謝謝金馬獎的:, 所有評委。真的謝謝。不知道怎麼樣, 說:: 話:: 來:, 說我的感謝。因為, 啊:, 其實我看到, 因為, 在:, 台灣, 也看過你們, 在這十幾年, 在這些電影, 你們在- 在-, 最低迷的時候, 你們怎麼樣撐過去。現在是我們, 香港電影最低迷的時候, 我也希望我們這一群人能撐過去。跑到跟你們同樣的目標, 謝謝你們。

5(C5.12.L). 2012年 第49屆金馬獎 最佳男主角獎: 劉青雲(<https://youtu.be/eFTaFVq4-rQ>)

e::, 拍電影, 不是爲了要拿獎的。e:, 我是開玩笑, 當然要拿獎。(聽眾大笑) e:- 我::sh-, 我要感謝:金馬獎, 也要感謝, 啊::, ()林先生, 還要感謝::, 杜琪峰導演。啊::, 我的家人, 啊::, 我太太。我把這個獎, 特別的送給:, 我媽媽, 還有送給我: 太太的: 爸爸。我岳父, 他sh- 他是住在:, 啊:, 台北的。每一次::, 啊:, 我有電影在: 臺灣上映的時候, 他:, 有打電話給我, qi-鼓勵我, 還有告訴我, 我的電影在:, 啊:, 在台灣呢, 啊傳媒啊, 他們:, 這看法是怎麼樣。我在這裡, 啊::, 非常感謝他們。希望他們身體健康, 謝謝。

6(C6.12.G). 2012年 第49屆金馬獎 最佳女主角獎: 桂綸鎂(<https://youtu.be/KSE4BqeFT4M>)

(邊笑邊哭) e::, 非常, 非常, 謝謝, 金馬獎的評審。因為, 在這個: 學習的路上, 能夠在: , 現在拿到這個獎。真的是給我一個, 非常重要的鼓勵。然後我非常喜歡拍電影, 我會繼續努力的拍下去。謝謝金馬獎評審。(掌聲) 然後::, 我要非常謝謝楊雅喆導演, 你寫了一個很棒的故事跟, 角色。然後你給了我, 兩位最棒的男演員, 跟, 最棒的女演員。張孝全, 鳳小岳, 張書豪。沒有你們, 對於表演的專注跟熱情, 我- 我不會有一次這麼棒的表演經驗, 謝謝你們。然後:, 我要謝謝::, 女朋友男朋友劇組的:, 所有工作同仁, 辛苦你們了。然後:, 我要謝謝, 我的:, 像我父親一樣的老師, 易智言導演。如果沒有你, 陪著我, 一路走來, 我不會認識電影, 認識表演, 認識我自己。然後:, 我終於得獎了。然後::, 我要謝謝, 一路上幫助過我的朋友們, 啊:, 我最-, 甜美的耶魯汀小姐, 陳一薇小姐, 菲菲, 啊:, 我一片空白, 靜宜, 小綠, 啊::, 我的助手們, 然後曾經幫助過我跟我一起合作過的演員跟導演們, 你們給我很多很多的愛, 我都收到了。最後, 最後, 我要:, 謝謝我的父母親, am:, 你們忍受了很多:, 寂寞也好, 或著是女兒的壞脾氣也好, 就只爲護, 女兒做自己最喜歡做的事情。謝謝。

■ 참고문헌

- 박찬옥(2015), 「중국어 회화교재 속 “謝謝” 연구: 대화구조 속에서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33집, 145-172쪽.
- 이원표(2001), 『담화분석—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 이혜용(2015), 『한국어 정표화행 연구—정표화행의 유형 분류와 수행 형식』, 서울: 역락.
- 顧曰國(2002), 『全球化與21世紀—首屆“中法學術論壇”論文集』,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劉虹(2004), 『會話結構分析』,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Coulmas, Florian(1981), “Poison to Your Soul” — Thanks and Apologies Contrastively Viewed, Florian Coulmas ed. *Conversational Routine: Explorations in Standardized Communication and Prepatterned Speech*, The Hague: New York : Mouton, pp.69-91.
- Drew, Paul, Marja-Leena Sorjonen(2011), Dialogue in Institutional Interactions, Teun A. Van Dijk ed. *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London: Sage, pp.191-216.
- Hutchby, Ian, Robin Wooffitt(1998),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 MA: Polity Press.
- Jung, Woo-Hyun(1999), “Thank you” and “You’re Welcome” in Spoken Discourse, *Discourse and Cognition*(『담화와 인지』) 6(2), pp.169-186.
- Searle, John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licensed.).
-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大众电影百花奖>.
<https://baike.baidu.com/item/台湾电影金马奖?fromtitle=金马奖&fromid=246320>.

❖ ABSTRACT

A Pragmatic Study on the Award Acceptance Speech
in the Film Award Ceremony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anking and Institutionality

Park, Chan-wook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award acceptance speeches by Korean leading male and female actors, and Chinese leading male and female actors from the thanking and institutionality perspectives. Corresponding to presenting an award as a public compliment, accepting an award is an active response to an award. Acceptance of an award leads to a vocal response to the award — thanking. In analyzing this, we must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conversation and institutional discourse first, on thanking by considering contents of the speaker's benefit, intention of the benefactor, uncertainty of the hearer on the film awards ceremony, role of participants in the ceremony, etc. Based on understanding this, this study analyzed award acceptance speeches by Korean and Chinese leading male and female actors on two aspects of such speeches. One is constructing the speech as a thanking discourse. The other is the order of people whom the speaker mentioned in the speech.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speeches are almost similar each other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speech, but are slightly different in elaboration, before and after thanking. And it shows that, based on the result of examining the order of people whom the speaker mentions, Korean male and female actors seem to regard themselves as performers. They also regard the ceremony as a setting in which to share the public's compliment (in the form of an award) with colleagues and audiences. However, Chinese male and female actors seem to regard themselves as appraisees, and the ceremony as a setting in which to be appraised.

Key Words : award acceptance speech, pragmatics, thanking, institutionality,
discourse

■ 논문접수일 : 2019. 05. 10

■ 심사완료일 : 2019. 06. 01

■ 게재확정일 : 2019. 06. 04